

8-31-2025 주일 설교 메시지

금주의 묵상: 시편 91:1-16

본문말씀: 베드로전서 1:1-25

말씀제목: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아 택함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지막 때에 어떤
삶을 살아야하는지에 대해 증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을 갖게 하신바,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잔하지 않는 유업을 간직해
두셨다고 증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마지막 때에
나타내려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다고 증거했습니다.

마지막 때에 마귀의 역사로 인해
여러가지 시험으로 잠시 동안 슬퍼할
수밖에 없지만 크게 기뻐하는 것은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 금보다 훨씬 더
귀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휴거의 날에 믿음으로 모든
시련을 이겨냄으로 인해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증거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 혼이
구원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증거에

대하여,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며, 지금도 그를 보지 못하나 믿고
있으며, 또 말할 수 없이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으로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다고
증거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받은 구원에 관해서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임할 은혜에
관하여 열심히 조사하고 살펴볼 때에
그들 안에 계셨던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다가올 영광을 미리
증거하실 때, 그 영이 무엇을, 또 어떤
시기를 지시하는지 탐구하여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이 행한 사역들은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었으며 성령을 통하여
복음전도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천사들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증거하고 있으나 천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마지막 때를 살면서
휴거를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생각의 하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끝까지

바라라. 순종하는 자녀들로서, 이전에
무지하던 때의 정욕에 너희 자신을
맞추지 말고 오히려 너희를 부르신
그분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 이는 기록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시기
때문이니라.”(벧전 1:13-16)

예수께서 지상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실 때 제자들을 거룩하게 해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요 17:17)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함은 어떤 외적으로
거룩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로
거룩하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사도 베드로가 증거했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통하여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너희 혼들을 정결케 하여
가식 없는 형제 사랑에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벧전 1:22)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리에 순종할
때 우리의 혼이 정결케되어 거룩하게
되며 혼이 정결케 될 때에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된다는 진리인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거듭남에 대하여
증거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며, 풀은 마르고 꽃은 저도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남아 있음이라. 이것이
너희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이니라.”(벧전 1:23-25)

그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할 때 듣는 자들이 회개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할 때 성령을
통하여 거듭나게 됨에 대하여 증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된 소망이시며 위대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영광스럽게 나타나시는 날을 기다리며
타국인처럼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그분께서
나타나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거룩하게
되어 뜨겁게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 하면서 그분께서 주시는
은혜를 끝까지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